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기도교
기
운
실
의
어
제,
오
늘
그
리
고
내
일

정병오 상임공동대표

기운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8월 4일

2판 1쇄 발행 2024년 7월 9일

지은이 정병오

펴낸이 백중국

편 집 김현아

디자인 윤동혁

펴낸곳 도서출판 기운실

주소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www.cemk.com 메일 cemk@hanmail.net

- copyright©202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ISBN 979-11-952512-0-9 /1323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서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그린라이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하여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청년운동>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www.cemk.org

목 차

격려사 - 9

퍼내는 말 - 13

1. 기윤실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시작되었나? - 17
2. 기윤실의 성격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 23
3. 그 동안 기윤실은 어떤 일을 해왔는가? - 35
4. 누가, 어떻게 기윤실 운동을 섬겨왔는가? - 47
5. 기윤실은 당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 55
6. 현재 기윤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61
7. 기윤실은 어떤 변화를 꿈꾸나? - 71
8. 기윤실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81

부록 01. 기윤실 창립취지문 - 88

부록 02. 기윤실 섬기는 사람들 - 95

부록 0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으로 함께하기 - 99

격려사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한국교회는 기도, 전도, 헌금, 성경공부, 선교, 봉사, 구제 등 거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세계에 모범적이다. 그 덕으로 개신교 선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였고 1세기 반 만에 한국의 최대 종교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성장이 멈췄고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윤리적 실패 때문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기는 하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실패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한때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조롱거리, 심지어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 구원을 받을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바로 그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아주 독특한 ‘복음’이다.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도 그것을 잘 알고 고백한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기윤실의 관심은 신학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윤리는 계명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소극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주로 적극적인 “…하라”가 아니라 소극적인 “…하지 마라”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복음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윤실은 1987년에 이미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지난 40년 가까이 끝

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바랐던 열매는 거두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변영신학에 함몰되어 세속적인 힘과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윤실의 임무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비록 바랐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 NGO가 되었고 다른 건전한 기독교 NGO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모판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런 점에서 기윤실은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전기를 하나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을 받았지만 기윤실은 그래도 윤리적 순수성을 잘 지켜왔다. 이에 공헌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창립에 관계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사회와 교회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기윤실의 역사를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교육계와 개혁주의 신앙계의 다양한 활동으로 매우 바쁜 정병오 공동대표가 시간을 내어 그동안의 역사와 앞으로 추구할 비전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작은 책자가 하나님나라와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의미 있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떠내는 말

지금 여기서 기윤실을 묻다

정병오 기윤실 상임공동대표



2017년 떨리는 마음으로 기윤실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8년째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처음 대표를 맡았을 때는 이 운동을 시작하고 이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역량, 그리고 기윤실이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갖는 위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졌다. 이러한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해 기윤실 30여 년 역사를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역사를 공부할수록 다가온 것은 선배들이 지켜왔던 기윤실 정신과 가치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정신은 그 시대 한국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조적으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지금 우리 세대가 직

면한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운실이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을 가진 명문 종갓집의 대저택이라면, 문화재로서의 외형과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누구든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설과 문화로 계속해서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대표 혼자서만 가져서는 안 되고 함께하는 모든 활동가와 회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기에 2020년 <기운실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명문 종갓집으로서 기운실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정신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기운실이 해왔던 일은 무엇이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기운실이 집중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담았다. 기운실 모든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기운실 마당과 마루에 둘러앉아 밤을 새며 고민하고 이야기할 거리를 던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은 기존의 기운실 활동가와 회원들 뿐 아니라 새롭게 참여하는 이들이 기운실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기반으로 비전을 품고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소중한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4년 여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상황이나 새롭게 펼쳐왔던 운동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

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불변하는 복음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듯 선배들이 지켜왔던 기윤실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를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새롭게 적용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도 늘 어렵게 느껴진다. 이 책이 이러한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7월

1

기윤실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시작되었나?

모든 조직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서 조직의 정신과 사명이 탄생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조직의 정신과 사명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교조주의에 빠져 변화하는 시대에서 도태되기 쉽다. 혹은 처음 붙잡았던 조직의 정신과 사명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시대의 조류만 좇다 보면 조직의 역사성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직이 건강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정신과 사명이 태동된 역사적 맥락을 잘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의 정신과 사명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재조정하고 여기에 맞는 과제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윤실은 1987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민주화’와 ‘정의’였다. 박정희 정부의 19년 독재 끝에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으며 폭압적인 통치를 이어갔다. 그리고 정통성을 상실한 불의한 통치에 편승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구조적 모순들이 편만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불의와 모순 앞에서 교회는 무력했다. 일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시대와 담을 쌓고(혹은 침묵으로 독재와 불의에 동조하면서) 교회 성장에만 힘을 쏟았다. 다행히 그 시대는 1970년대부터 지속된 교회 성장세가 계속되는 시대였지만 교회는 그러한 성장의 열매를 교회당 건축, 기도원 땅 매입 등 자산 축적과 교세 확장의 기회로만 활용했다. 그리고 복음을 종교적 의무 충실을 통한 현세적 복을 누리는 것으로 좁히며 왜곡하였고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적 삶과 세상 가운데서의 소명 실천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펼쳐주지 못했다.

당시 군부독재의 통치 억압과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중심 세력은 대학생 운동권과 진보 지식인 그룹이었다. 이들은 투옥과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에 저항하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민

주화와 정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은 군부독재의 억압이 강화될수록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토대를 필요로 했고 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사회를 보는 눈과 투쟁의 동력, 방법론을 끌어왔다. 그러다보니 민주화와 사회 정의를 넘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 한 체제 변혁을 꿈꾸었고 이를 위한 폭력적인 저항도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었다(이 흐름은 1990년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약화되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이어진 교회의 급성장은 학생신교단체들과 기독교성인의 성장도 가져왔다. 이들은 여전히 복음전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었지만, 시대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복음의 관점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대학생 운동권과 진보 지식인들의 수고와 헌신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념적 지향과 운동 방법론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함께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불의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데에 헌신하기 원했지만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마땅한 틀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다.

기윤실은 이러한 기독교 청년들과 지성인들의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 즈음부터 손봉호 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



울대학교 기독교인 교수 모임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산상 설교>를 교재로 정기적인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복음에 기반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써 시대의 불의를 고쳐나가는 기독교 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출범했다. 그러자 고민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했고, 기윤실 운동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2

기윤실의 성격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개인윤리의 기반 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운동>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개혁운동>
성도들이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세상을 바꾸고 섬기는
기독교시민으로 살도록 돕는 <기독교시민운동>

모든 단체는 시작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고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단체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과제를 이미 감당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가?”, “이 과제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과 구별되는 우리 단체만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물론 이 고민들의 답을 다 제시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민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기도 하고 또 처음에 생각했던 답이 운동을 하면서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의 과정 없이 무작정 단체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고민을 놓쳐버리면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다.

기윤실은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가정과 교회, 직장 가운데서 실천하고,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올바르게 세워지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운동의 큰 취지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실제로 운동을 해 오면서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졌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보완된 부분도 많다. 이러한 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형성된 기윤실의 성격과 정체성은 다음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윤리의 기반 위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 운동>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윤실이 처음 시작된 1980년대에는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개인의 도덕 실천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강조가 자칫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의 집중도를 약화시킬 것을 경계했다. 나아가 사회 구조를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합리화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사회 모든 면에서 불의하고 억압적인 구조가 워낙 강고했기에 이를 타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개인의 도덕 문제는 이차적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했다. 워낙 불의했던 사회 구조에 반하는 것이 저항의 한 방법이기도 했기에 이 상황에서 도덕과 준법을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기윤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고, 개인윤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바꾸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윤실은 개인들이 철저하게 양심과 도덕을 지키는 것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덕과 양심을 잘 지키는 분위기의 확산과 연대의 강화는 불의한 사회구조와 모순들에 균열을 내고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기윤실은 복음이 기본적으로 개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위해 살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 정의를 추구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윤실은 처음부터 검소, 절제, 나눔,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실천해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윤리들이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며 약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렇게 이웃을 위해 절제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실천하다 보면 개인의 실천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개인윤리의 실천을 기반으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할 때 운동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기윤실이 가진 고유한 운동의 방법론이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방식인 것이다.

둘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이다.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모임과 단체들이 있다. 이 가운데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한다. 대학생 선교단체, 어린이나 청소년 선교단체들이 대표적이다. 한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일반인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 월드비전과 같은 구호나 복지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그렇고, YMCA, YWCA와 같은 사회 계몽 단체들도 그렇다. 이에 반해 기윤실은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기독교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사회정의와 관련해서 일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만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기독교 신앙에 기반 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것은 기윤실이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단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나라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한다. 이에서 파생된 하나님나라의 각 영역을 세워가는 일은 성도들이 교회병행단체를 세워 교회를 보완하며 전문적으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학생 선교단체, 해외 선교단체, 구호 및 복지 단체들이 활동

해 왔다. 기윤실은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기윤실은 처음부터 모든 활동을 교회와 함께하려고 노력했다. 교회의 물적,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았고, 교회를 대신해 전문적으로 사회를 섬기고자 했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교회가 보다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왔다. 이를 위해 때로는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가 아닌 교회에 애정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상을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해 온 것이다.

셋째,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교회개혁운동>이다.

기윤실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윤리 운동이다.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병행기관이다. 이러한 기윤실의 성격이 필연적

으로 제기하는 질문이 바로 “교회는?”이다. 윤리적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사회를 바꾸기 전에 교회를 먼저 돌아보라는 목소리인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기 전에 과연 교회라는 조직은 얼마나 건강한지, 사회적 책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회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사회의 요구이기 이전에 철저하게 개인윤리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윤실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윤실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 개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교회의 핵심인 예배나 말씀, 성례 등은 기윤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신학교나 총회, 노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윤실은 예배, 말씀, 성례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재정 사용, 의사결정 구조, 목회자 청빙, 사회봉사 등과 관련된 파생적인 부분의 개혁에 집중해왔다. 물론 파생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본질적인 부분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사회적으로 볼 때는 본질적인 부분보다 파생적인 부분이 더 눈에 띄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파생적인 부분은 본

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고 서로 넘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이러한 구분과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은 복음전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 전도에 쉽게 호응을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나아온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잘 나아오지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회자 세습, 불투명한 교회의 재정 사용, 목회자의 성적 일탈,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 결과 복음 전도의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윤실의 교회개혁 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전도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넷째, 성도들이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세상을 바꾸고 섬기는
기독교시민으로 살도록 돕는 <기독교시민운동>이다.**

기윤실의 처음 출발은 소수의 명망가들이 기독교인 대중들의 의식을 깨워나가는 계몽운동에 가까웠다. 하지만 점차 기윤실 운동의 취지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되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기점을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출범으로 잡는다고 할 때, 1987년에 출범한 기윤실은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의 영역은 교회 봉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윤실은 우리 사회의 공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나라를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열어줌으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 시민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기윤실이 열어준 기독 시민운동의 장 안에서 많은 기독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드려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활동했고, 많은 전문 단체들이 기윤실로부터 분화되어 나갔다. 이처럼 기윤실은 기독교 시민운동의 모판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많은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들과 협력하며 만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3

기윤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윤실은 많은 일을 해왔다. 그 일들 가운데는 기윤실이 처음부터 조직의 목표로 삼고 시작한 일도 있었고, 시대적 요청에 호응한 일도 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일도 있고, 일정 기간만 진행했던 일도 있다. 조직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일도 있고, 애써 수고했지만 눈에 보이는 큰 성과 없이 접어야 했던 일도 있다. 이렇게 기윤실이 펼쳐 온 일들은 대략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윤리 의식을 깨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기윤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각종 모임, 전도와 선교에는 열심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직장,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부족한 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섬기거나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결국 전도의 문도 막힐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윤실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

고, 가정을 사랑으로 가꾸며, 검소 절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이웃 사랑과 환경 보호의 참된 경건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왔다.



이 사역은 초기에는 설교와 강의 중심의 계몽운동으로, 이 후에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한 실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소형차 타기 운동,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촌지 근절 운동, 전월세 인상하지 않기 운동, 검소한 결혼 문화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사회적 호응을 얻었다. 2012년부터는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등 우리 삶

의 전 영역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절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가치 확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조류가 워낙 거세고, 이를 바꾸어야 할 교회마저도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많이 물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소, 절제, 나눔, 정직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불편운동>은 한국사회와 교회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믿고 이 운동을 계속 지켜오고 있다.

둘째,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일을 해 왔다.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윤리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교회의 비극이자 한국사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 받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문제, 교회 지도자들의 성범죄 등 교회 내 비리와 불법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가장 심각한 교회 타락의 현상이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임원 선거 관련 금품 살포로 문제가 된 한기총의 해체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기윤실은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도 지속해왔다. 이웃을 위해 교회 자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발굴하여 격려하며 그 모범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재정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목회자와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농어촌 교회와 개척 교회의 사역자 가정을 돕는 사역과 부교역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운동도 전개했다. 2018년부터는 급변하고 다양화된 시대 가운데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그리

스도인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계와 사회 이슈를 기독교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나무> 웹진을 발간하고 있다. <좋은나무>는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목회와 설교에 도움을 주고 성도들에게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청소년과 가정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기윤실은 한국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창립 초창기부터 <기독교가족상담소>와 <아버지학교> 등을 운영했으며, 청소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성도덕을 훼손하는 음란매체들을 추방하는 일에 힘을 써왔다. 또한 한국사회 곳곳에 상존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불법선거를 추방하고 공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으로 깨끗한 정

치를 추구하며,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함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운동>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운동>, <도박사행산업 근절운동>, <청년부채ZERO운동>, <청탁금지법 제정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 사회에 윤리적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신문 음란물 추방운동>이었다.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한 전 국민이 보는 대중 매체가 경쟁적으로 음란 사진과 글을 게재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불매운동으로 모든 스포츠 신문들이 이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1면에 사과문을 싣고 건강한 성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손봉호 교수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일은 시민운동이 일반 언론을 대상으로 승리한 기념비적인 일로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운동은 <공명선거운동>이다. 당시 선거 때마다 엄청난 돈이 뿌려지고 불법이 자행되던 상황에서 기운실은 공명선거운동연합을 주도하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고, 선거법 개정운동을 통해 돈 선거를 막는 엄격한 공직자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얻었다. 이를 이어 이후에는 선관위 차원에서 불법 선거를 막는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해야 할 일은 줄어들게 되었다.

넷째, 다양한 기독 운동의 모판 역할을 해 왔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운실이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맡았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다양한 기독 운동의 모판 역할이었다. 이는 기운실이 기독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단체로서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운실이 단체의 성장이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운실이 직간접으로 모판 역할을 한 단체는 10여 개가 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몇 단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윤실에서 성장하여 독립한 대표적인 기독교 직능인 단체로 <좋은교사운동>을 들 수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윤실 교사모임>이 다른 10여 개 기독교사 단체들과 연합하여 만든 기독교사 연합모임이다. 기윤실은 초기 교사모임이 교육계 내에서 정직 운동과 학교와 교실을 변화시키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후 <기윤실 교사모임>이 다른 기독교사 단체들과 연합을 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현재 <좋은교사운동>은 전국에 4,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기독교사 단체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를 품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독교법률가회(CLF)>도 기윤실에서 독립한 대표적 직능단체다. <기독교법률가회>는 원래 기윤실 산하 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사랑 변호사회’로 출발했다. 이후 조직이 커지면서 법률 영역에서



의 하나님나라를 꿈꾼다는 목표 하에 독립했고, 지금은 기독교 변호사들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기독교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다음으로 기윤실의 중요 운동이 독립하여 단체를 만든 대표적인 경우가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이다. 기윤실의 초창기 중요 운동이던 ‘문화소비자운동’을 이끌던 권장희 처장이 기윤실을 퇴사하면서 하나의 단체로 독립을 했다. 이때 기윤실은 문화소비자운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 운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운동 노하우를 이 단체가 이어받아서 하도록 했다. 지금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교육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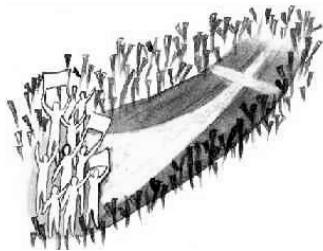
기윤실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독립한 단체로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기윤실이 초기 교회 세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생긴 의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시킨 단체다. 이후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 세습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 분

쟁 문제 상담, 모범 정관 갖기 운동 등을 펼치며 교회 개혁 관련 전문 단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

누가, 어떻게
기윤실 운동을
섬겨왔는가?

많은 단체들이 각자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가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단체의 사명과 정신을 이어갔는지가 핵심이다. 감사하게도 기윤실은 좋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헌신된 자세로 함께했고,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며 섬겨왔다. 이들이 있었기에 기윤실은 초기 정착을 잘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첫째, 메시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되, 권력과 영광을 취하지 않는 리더십이 있었다.

기윤실은 손봉호 교수 외 37명의 발기인으로 시작을 했다.

처음 이 운동을 제안했던 손봉호 교수는 이 운동에서 특정한 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대표’ 직책을 두지 않고 ‘공동 실무 책임자’ 체제로 일을 했다. 처음 10여 년은 김인수 교수, 손봉호 교수, 원호택 교수, 이만열 교수 등이 실무 책임자로 섬겼다. 2000년 기윤실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이사회가 조직의 비전을 지키고 공동대표가 본부장들과 협의 하에 운동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25년 동안 김인수 교수, 이장규 교수, 우창록 변호사, 이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 백종국 교수가 역대 이사장으로, 강영안 교수, 손봉호 교수, 홍정길 목사, 김일수 교수, 김동호 목사, 백종국 교수, 이장규 교수, 주광순 교수, 이동원 목사, 임성빈 교수, 박은조 목사, 전재중 변호사, 배종석 교수, 정병오 교사, 정현구 목사, 조성돈 교수, 조주희 목사가 역대 공동대표로 섬겨왔다.

기윤실의 이사장과 공동대표 등의 리더십은 기윤실 정신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기윤실이 꼭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재정을 책임지는 일로 섬겼다. 무엇보다 리더십들은 기윤실이 주장하

는 바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먼저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 왔으며, 이 운동을 자신의 권력이나 영광으로 취하지 않으려는 모범과 전통을 만들어왔다.



[2024년 기윤실 회원총회]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헌신된 자원 전문가 활동가들이 영입되고 협업을 하였다.

기윤실의 리더십은 시대를 분별하고 이에 대한 운동의 방향을 잡는 일을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운동으로 풀어내는 일은 해당 분야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감당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별 운동본부의 책임자들이 모인 상임집행위원회가 운동의 실무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기운실에 전문가 자원 활동가 자원이 계속 영입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리더십들이 한국교회 내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들이 구체적인 운동의 실무 결정권을 전문가 자원 활동가들에게 대폭 이양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자원 활동가들은 자신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과외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운실 활동에 쏟으며 그 과정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에 기쁨으로 참여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기운실이 전문가 자원 활동가들이 열심히 참여해줌에 따라 기운실 운동의 전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상근 활동가 채용에 대한 재정적 압박도 줄일 수 있었다. 또 전문가 자원 활동가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 차기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원만한 리더십 계승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 기운실이 가진 대안을 회원 및 대중들의 손에 잡히는 운동으로 바꾸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감각을 가진 상근

활동가들의 헌신이 있었다.

기윤실이 초창기에는 ‘계몽운동’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손봉호 교수나 실행위원들의 강연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근 활동가를 세우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동을 이끌어가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초기에는 양성만 교수, 황영철 목사가 간사로 섬겼고, 유해신 목사가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상근 활동가 인원이 늘고 역량이 커지는 등 사무국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후 권장희 사무처장, 나용균 사무처장, 곽상배 사무처장, 라영환 사무총장, 이진오 사무처장, 양세진 사무총장, 조제호 사무처장, 김현아 사무처장 등이 사무국의 책임자로서 수고했다.

넷째, 조직의 비전과 운동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회원들이 함께했다.

기윤실이 시작되기 전 한국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



음의 능력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은 기운실이 시작되자마자 기운실 운동을 자신의 운동으로 삼아 삶에서 실천하며 이 운동의 확산과 열매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적극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분과 모임을 만들거나 기운실이 제시하는 운동을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직장, 교회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기도 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자발성은 전국적으로 지역 기운실이 일어나는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운동을 각 영역별로 확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5

기윤실은
당면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단체는 없다. 문제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단체의 성쇠가 좌우된다. 그런데 보통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거나 쇠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보통 그 단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 외부의 공격이 강할수록 내부는 더 단결하여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등을 잘 조정하지 못하거나 내부의 문제들이 쌓여감에도 방치를 하다가 내부에서 무너지거나 쇠해지는 단체는 많다. 기운실도 지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다.

첫째, 1세대 리더십 이후 리더십을 계승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손봉호 교수는 기운실이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손봉호 교수는 기운실이 ‘손봉호의 기운실’이 되는 것을 극구 경계했다. 그래서 초기부터 실행위원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를 유지했고, 운동이 커지면서는 분과별로 책임자들을 세

워서 그 단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손봉호 교수의 영향력과 리더십의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었지만, 손봉호 교수가 적절한 시기에 일선에서 물러나 기윤실 사역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대표를 이어 받은 분들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었고, 지속적인 리더십 세대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현재에도 기윤실은 1인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 공동대표들과 상임집행위원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둘째, 기윤실 운동의 방향과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비전 재정립의 과정을 거쳐왔다.

기윤실은 처음 붙잡았던 정신과 방향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변화나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리더십의 교체기마다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부에서 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때로는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윤실은 비전위원회 같은 내부 특별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하

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운실이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 “현재 기운실의 역량을 생각할 때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가?”,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 가운데 기운실에게 시급히 요청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진정으로 유익한가?”, “정체성과 확장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재의 차이를 다양성 차원에서 포용할 수준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 동안 기운실이 소중하게 가꾸어왔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운동들을 많이 분화 독립시켰다. 건강가정운동, 가족상담소, 문화소비자운동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운동의 방법이나 수위의 차이로 건강교회운동이 <교회개혁 실천연대>로 독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일들 가운데도 기운실의 정체성과 너무 멀어졌거나 기운실의 역량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여 중단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나 사무국 책임자들의 교체가

있었고 이 일들이 조직에 아픔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을 멈추고 조직과 사역을 축소함으로써 기윤실의 정신과 방향에 맞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찾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조직과 운동에 대한 성찰, 선택과 집중, 새로운 운동 과제와 사람 찾기 등의 과정을 통해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

셋째,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투명성과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

기윤실은 초창기부터 회원들의 회비와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해왔다. 기윤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사역이 늘어나면서 재정의 부족은 늘 어려운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위탁 사업 가운데 기윤실의 사역과 겹치는 부분은 사업을 수주하여 그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자칫 주객이 전도되기가 쉽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 정부의 위탁 사업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일부 대형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은 재정을 지원받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목회 세습 혹은 비윤리적인 일과 연관되어 기운실이 비판적 입장을 발표하게 되자 후원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정 교회에 많은 재정적 의존을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 상황에서 구호 단체가 아닌 기독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교회 차원에서 후원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실의 존재와 그 활동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자를 품고 불의에 저항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결실을 맺는 것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후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기운실은 재정 규모가 매우 작았던 초창기부터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4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재정과 관련된 사고가 전혀 없었다.

6

현재 기윤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2024년 현재 기윤실은 4개의 운동본부인 <자발적불편운동본부> <교회신뢰운동본부> <좋은사회운동본부> <청년운동본부>, 2개의 부설기구인 <좋은나무> <청년센터 WAY>, 3개의 자치기구인 <기독교윤리연구소> <사회복지위원회> <교사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직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활동과 운동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자발적불편운동은 기윤실이 창립 때부터 붙들었던 검소, 절제, 나눔의 가치를 우리 삶의 양식으로 내면화한 실천 운동이다. 이를 통해 물질과 쾌락 중심의 자본주의적 가치에 저항하며 환경과 미래 세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다하는 개인적 실천에서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것까지 포



[자발적불편운동 강연회]



[자발적불편운동 실천발자국]

펼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매 계절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인, 교회, 지역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발적불편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강연과 세미나, 자료 제작, 정책 입안 운동까지 함께하고 있다.

〈교회신뢰운동본부〉

교회신뢰운동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들을 드러내고 각각의 원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매 3년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신뢰도 변화 추이와 불신의 요인들을 정량적 분석을 통



[2020년 교회신뢰도여론조사]



[교역자 표준동역협의회 공청회]

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목회세습, 목회자 윤리, 교회 재정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최근에는 또 다른 한국교회의 뇌관이 되고 있는 부교역자 처우 문제, 목회자 은퇴와 청빙, 표준 생활비 관련 문제, 교회 민주주의 등과 관련해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과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각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안 대응도 함께하고 있다.

〈좋은사회운동본부〉

좋은사회운동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신원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사회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



[공명선거운동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정책제안서 전달]

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운동’과 정부의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념과 정파로 인한 심각한 분열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운동’도 함께하고 있다.

〈청년운동본부〉

청년운동은 기독교청년들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스스로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 서가고 리더십을 길러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청년들의 고민들을 스스로 이



[기독교청년프로젝트 북토크]



[청년위원회]

야기하고 대안을 만들며 이를 어른 세대와 공유하는 ‘기독청년프로젝트’를 여러 이슈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청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관심을 따라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청년이슈ON’, 청년들이 처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청년정책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담아 ‘WAYVE letter’라는 이름의 웹진을 격주 단위로 발행하고 있다.

〈좋은나무〉

〈좋은나무〉는 내가 속한 진영과 이념성향을 만족시켜줄 이야기를 찾아 확장편향을 강화하고자 하는 탈진실 시대에 맞서,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글들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영성, 정직한 양심을 갖춘 그리스도인 필진들을 구축하고 여러 교계 및 사회 이슈에 대해 매주 3편의 글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에게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여 이를 설교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성도들

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좋은나무 구독자 모임]



[기윤실 청년센터 WAY 출범식]

〈청년센터 WAY〉

〈청년센터 WAY〉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전 사회적 위기 앞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청년센터 WAY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직접 돕고 있지만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청년센터 WAY의 사역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상담센터 WITH’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재무상담소 WINGS’로 진행된다. 청년센터를 통해 심리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청년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돕는 선순환의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연구소〉

기독교윤리연구소는 인문, 사회, 신학의 각 분야를 전공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기윤실이 운동 과제를 설정하고 전개하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안목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 결과물로 〈정의로운 기독교인〉, 〈일상의 평화를 일구는 공동체〉를 발간했고,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발간,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리스도인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여하고 있다.

〈교사모임〉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독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사의 소명과 정체성 확립,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 수업과 생활지도 전문성 혁신, 신뢰받는 학교 문화 만들기, 불의한 교육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35개 지역모임과 9개의 전문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7

기윤실은
어떤 변화를 꿈꾸나?

기윤실은 존재 자체가 목적인 가정이나 교회와 달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다. 그러므로 기윤실은 현재 여러 영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역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한다. 다음은 기윤실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를 위해 기윤실이 집중하고자 하는 운동의 전략이다.

첫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검소한 생활방식과 자발적 불편을 실천함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양식을 선도하게 된다.

〈문제 상황〉

-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시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불편한 삶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구호만 있고 삶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학적 신앙적 차

원에서 연결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소비 체제 가운데 안주하고 있다.

〈해결 전략〉

-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자발적 불편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고 구원의 증표이며 경건의 척도임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확산시킨다.
-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검소한 생활방식과 자발적 불편의 구체적 실천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교회 차원에서 가르치고 함께 실천함으로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까지 확대해간다.
- 경제적 이익과 효율, 편리 중심의 흐름과 정책에 제동을 걸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정책 대안을 제시 및 관철한다.

둘째, 교회가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문제 상황〉

-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격차를 넘어 새로운 계급으로 정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절망감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인구 소멸의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 국가 차원에서 여러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승자독식과 각자도생이라는 사회 기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 교회는 개인 구제 차원의 노력에만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결 전략〉

- 양극화 해소와 복지 정책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문제를 주목하고 개별 교회 혹은 교회 연합 차원에서 실천 사례를 만들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정책화하는 전략적 체계적 노력을 한다.
-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고, 사랑과 정의로 공평을 실

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좋은 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한다.

셋째,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을 모색하게 됨으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게 된다.

〈문제 상황〉

- 한국 사회 내 이념과 정파 간 갈등, 세대와 젠더 갈등, 사회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분야별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정책이나 정치적 과정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시함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위기에 처했다.
-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의 길로 이끌어야 할 교회가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어 특정 정파와 이념, 입장을 신앙으로 합리화하고 행동에 앞장섬으로 시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해결 전략〉

- 사회의 현안에 대해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관점을 제시하는 <좋은나무> 내용 심화, 독자 확대, 전달 방법 다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 현안에 대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정파, 이념, 입장의 차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간 다양한 형태의 대화 모임을 통해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사회 전반과 정치로 확장해간다.
-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과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한다.

넷째, 교회의 민주적 운영, 투명한 재정 집행, 이웃과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확대됨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

〈문제 상황〉

- 담임목사직 세습, 교회 지도자들의 성 비위, 교회 분쟁 등 한국교회의 윤리적 실패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 이념 편향과 공감 부재 등의 영향으로 비기독교인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
- 담임 목사와 당회 중심의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불투명한 재정 운영, 변화하는 시대와 성도들의 삶과 고민에 응답하지 못하는 목회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독교인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해결 전략〉

- 교계와 교회 지도자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 노력을 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지침, 교회의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 결정, 교회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청빙부터 생활비, 은퇴 지원까지 목회자 관련 표준 마련 등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마련하고 확산한다.

-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각 영역별 윤리적 표준과 실천 지침을 제시함한다.

다섯째, 기독교청년들이 기독교시민운동 가운데서 자신이 교회와 사회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운동화하는 경험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한다.

<문제 상황>

-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높은 진입장벽,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의 등 젊은 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압박 가운데 기독교 청년들도 소진되고 위축되어 있다.
- 장년 남성 중심의 교회 의사 결정 구조, 교회 봉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 개인 영성에 치우친 신앙 훈련 체제 가운데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해결 전략>

- 왜곡된 사회 구조 가운데 재정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청

년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자라도록 돕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 교회로 확대한다.

- 기윤실의 각 운동 의사 결정 단위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리더십을 키우도록 도울 뿐 아니라 청년 세대가 자신들이 가진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8

기운실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기운실 활동에 참여하는 6가지 방법〉

1.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정기 후원에 참여한다.

- 기운실의 정신에 동의하고 복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회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은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에서 〈좋은나무〉를 구독한다.

- 회원 가입을 했더라도 〈좋은나무〉 구독은 카카오톡에서 친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좋은나무〉 구독은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발적불편운동 계절별 캠페인에 참여한다.

- 자발적불편운동은 기본적으로 계절별로 캠페인이 진행되지만 월별 실천 과제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계절별 캠페인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이나 교회 혹은 지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기윤실이 주최하는 각종 포럼, 세미나, 강연 등에 참여한다.

- 회원에게는 기윤실의 모든 행사 소식을 메일과 문자로 전달됩니다.
- 회원은 기윤실의 모든 행사의 참가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은사와 관심을 따라 기윤실 세부 운동의 위원으로 자원한다.

- 기윤실의 각 분과와 전문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무국으로 신청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기윤실 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을 느끼는 사역이 있을 경우 사무국에 제안을 하고 뜻맞는 회원들과 소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윤리를 실천하며, 이 과정에서 함께 실천하면 좋은 의제를 기윤실에 제안한다.

-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 자신이 실천했던 좋은 사례를 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들과 공유합니다.

〈교회가 기윤실 활동에 함께 하는 7가지 방법〉

1.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회원 교회로 신청하고 재정 후원을 한다.

- 재정 후원은 매월 정액 후원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특별 후원이 가능합니다.

2. 교인들이 카카오톡에서 〈좋은나무〉를 구독하도록 안내한다.

- 이슈에 따라 〈좋은나무〉 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필자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자발적불편운동 계절별 캠페인 포스터를 교회에 부착하고 교회가 함께 실천한다.

- 캠페인 내용을 교회의 형편에 맞게 선별하거나 더 구체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신뢰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윤실의 제안들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한다.

- 개별 교회에서 실천한 내용들을 기윤실을 통해 다른 교회들과 공유함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기윤실 소속 임원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 단회적 전체 특강뿐 아니라 리더훈련과정 등 주제별 묶음으로도 가능합니다.

6. 청년부 회원 가운데 심리상담이나 재무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윤실 청년센터와 연결한다.

- 기윤실 청년센터와 개별적 연결도 가능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7.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좋은 사례를 기운실과 공유한다.

- 설교를 통해 기독교윤리가 가르쳐지고 성도의 삶의 실천을 통해 피드백되는 선순환 사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취지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문제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은 우리의 안정과 인간적인 삶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갈등과 문제점들은 상당한 부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근거해 있다고 본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부당한 특권과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도덕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고 있다.

한 사회의 도덕은, 물론 그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패의 뿌리가 깊어져서 사회의 도덕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독교가 그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교세 확장에는 많은 힘을 기울였으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은 강조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부패에 편승하는 잘못도 많이 저질렀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수치스러운 사건에 기독교인이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너무나 뼈아프게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는 이를 개탄할 자격이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정죄의 손가락을 치켜들 권리가 없음을 통감한다.

이에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조리가 우리들 자신의 불의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며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뺀 다음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생활 태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

고취하고자 함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평신도 운동이지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교회 운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경시하거나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듭난 신자의 삶은 반드시 경건해져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함에서이다. 이 순종을 개인의 삶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의를 이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서로서로를 독려하고자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행동지침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1.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돌보며, 자녀들을 주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쓴다.
2. 의식주와 각종 소비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지키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 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자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3. 모든 언행을 정직하게 하고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추방하려고 노력한다.
4. 모든 도덕적이고 정당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개인적으로나 직책상 뇌물의 수수를 거부하며 탈세하지 않으며 공중도덕을 지킨다. 정당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임을 인식한다.

5.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하며, 특히 사회의 약자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6. 직장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되 직장의 불법과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막으려 힘쓴다.

교회에 대해서는

7. 교회 내의 모든 사치와 낭비를 없애려고 노력하며 교우들에게 절제 생활을 권면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힘쓴다.
8. 교회로 하여금 세법, 건축법, 자동차 사업법 등 정당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며 주위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애쓴다.

9. 교회에서 권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비도덕적인 수단을 통한 교세 확장을 배격하며 비교육적인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거부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10. 기업, 언론, 출판 등 사회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진실을 확인한 후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정계와 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도덕을 시민의 자격으로 이를 고발한다.
11.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을 자극하는 음란매체와 퇴폐업소들의 추방에 힘쓴다.
12. 불의한 제도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국가의 법과 정책에 대해서 그 개선을 설득, 권고, 경고하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되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13.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 간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약소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의한 침해를 감시하며 약소국의 생산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14.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랑의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핵무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힘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리나 특권도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만 있다. 이 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1987. 1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 이사회 (2024년)

백종국 (이사장)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의용 (부이사장) 교회문화연구소 소장	
정병오 (부이사장, 상임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조성돈 (공동대표) 실천신대 교수	
조주희 (공동대표) 성암교회 담임목사	
강석창 미네랄바이오 회장	손은실 서울대 교수
곽중철 전남기윤실 공동대표	송인수 (재)교육의봄 공동대표
권수경 일원동교회 담임목사	왕보현 남대문교회 장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유해신 관악교회 담임목사
권혁률 성공회대 연구교수	이문식 광고산울교회 담임목사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이충열 가천대 명예교수
김경태 MYSC 대표	임성빈 한국리더십학교 학교장
김홍섭 인천대 명예교수	장동민 백석대 교수
박계우 아이티엘엔터프라이즈 상무	조홍식 서울대 명예교수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최규창 (주)호성로고스 대표
배중석 고려대 교수	최현범 기독교통일학회 회장

■ 상임집행위원회 (2024년)

- 정병오 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조성돈 공동대표 (실천신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조주희 공동대표 (성암교회 담임목사)
이창호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
신동식 교회신뢰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이상민 좋은사회운동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구자창 청년운동공동본부장 (국민일보 기자)
우미연 청년운동공동본부장 (법률사무소 우리 변호사)
김현아 기윤실 사무처장
노중문 좋은나무 편집주간 (전 IVP 편집장)
성신형 기독교윤리연구소장 (송실대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이재민 사회복지위원회장 (강서대학교 부원장 및 초빙교수)
김상덕 상임집행위원 (한신대 연구교수)
김성경 상임집행위원 (육구코칭연구소 소장)
김세진 상임집행위원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김영식 상임집행위원 (좋은교사운동 전 공동대표)
박정우 상임집행위원 (광운선교회 교육)
신하영 상임집행위원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이성은 상임집행위원 (서울대 독어독문과 교수)
정재훈 상임집행위원 (법무법인루츠 변호사)

■ **자문위원회** (2024년)

손봉호 자문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강영안 미국칼빈신학교 교수	이장규 서울대 명예교수
곽상배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국장	이진오 세나무교회 목사
리영환 홍신대 교수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 **사무처** (2024년)

김현아 사무처장 운동혁 간사 이명진 간사 한성화 간사 흥천행 간사

■ **본부/기구별 조직** (2024년)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이창호 (기획위원) 강희영 박승 박제우 유미호 한창희

〈교회신뢰운동본부〉

(본부장) 신동식 (기획위원) 김상덕 정병오 박명재 조성돈 정재훈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이상민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전문위원) 박제민 정병오 천윤석

(약자와 함께 하는 운동 전문위원) 김규찬 김세진 윤연철 임혜진

〈청년운동본부〉

(본부장) 구자창 우미연

(청년위원) 권소희 김상규 김지은 백종원 윤진영 전도연 조해진

〈청년센터WAY〉

(센터장) 조성돈

청년희망재무상담소 WINGS

(소장) 김서로

(운영위원) 김현아 설성호 최봉석

(상담사) 이일영 임명희 최봉석

청년상담센터 WITH

(공동소장) 박은진 김성경

(운영위원) 김현아 안해용 조성돈 최정희

(상담사) 김미영 민향숙 박지안 오경득 최문희

〈좋은나무〉

(편집주간) 노종문 (편집위원) 강영안 권수경 박미낭 성영은 손화철 송용원

신하영 옥성득 이성은 이정일 정병오 정현구 조성돈 조수진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성신형 (연구위원) 가정호 김상덕 김성수 김승환 목광수 박선영 박치현

박혜인 손승호 엄국화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민 조흥식

〈기윤실교사모임〉

(공동대표) 이은규 이인성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으로 함께하기

기윤실
뉴스레터



좋은나무 웹진



이메일



카카오톡채널

WAYVE레터



www.facebook.com/giyunsil



www.youtube.com/giyunsil



www.instagram.com/giyunsil

후원회원 가입

국민은행 037-01-0504-979

하나은행 109-228746-00104

하나은행 105-910021-82204(청년센터WAY)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QR코드로 가입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0257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6길 19, 202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